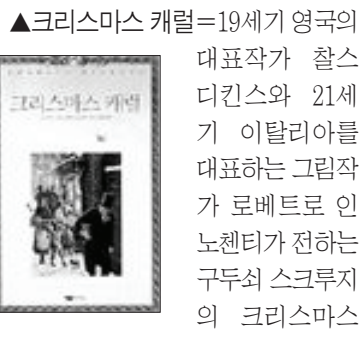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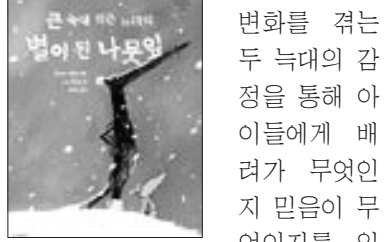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크리스마스 캐럴=19세기 영국의 대표작가 찰스 디킨스와 21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림작가 로베르토 인노첸티가 전하는 구두쇠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돈만 굶어오는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어린이 작가정신·1만2천원〉

▲큰늑대 작은 늑대의 별이 된 나뭇잎=사계절의 변화를 겪는 두 늑대의 감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려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서로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두 늑대의 마음은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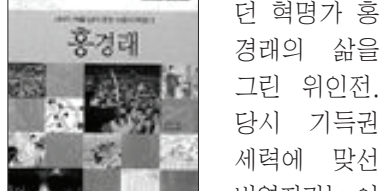


〈시공주니어·8천500원〉

▲홍경래=조선시대 '홍경래의 난'으로 농민항쟁의 물꼬를 텄던 혁명가 홍경래의 삶을 그린 위인전. 당시 기록과 세력에 맞선 반역자라는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은 홍경래의 삶을 초상화를 바탕으로 재현해 구성했다.

〈아이세움·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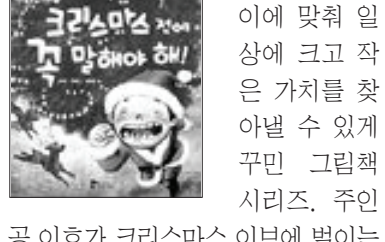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전에 꼭 말해야 해=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일상에 크고 작은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꾸민 그림책 시리즈. 주인공 이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별이는 모험이야기를 통해 사과와 용서의 가치를 전한다.



〈휴이님·9천원〉

▲위대한 마법사 달벤=영국작가 로이드 알렉산더가 쓴 5부작 '프리데인 연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8가지 이야기를 모았다. 주인공이 마법과 환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땅 프리데인에서 별이는 모험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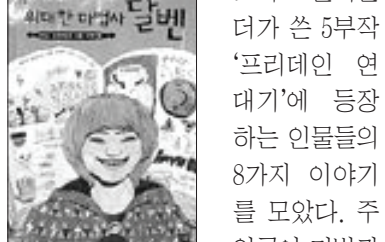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아이세움·9천500원〉

▲위대한 마법사 달벤=영국작가 로이드 알렉산더가 쓴 5부작 '프리데인 연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8가지 이야기를 모았다. 주인공이 마법과 환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땅 프리데인에서 별이는 모험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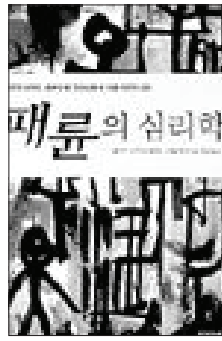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패륜 범죄자들의 정신 상태는?

패륜의 심리학 클로드 세르카-니콜레스·미셸 뒤편 지음



‘전대미문 가족 살인마... 막가는 인륜 그 끝은?’ 최근 충북 청원에서 부모와 처자식을 두 번에 걸쳐 모두 죽인 극악무도한 패륜범죄가 발생했다. 2년 전 방화사건 당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 장애) 범죄로 의심됐음에도 방치되어 오다 큰 재앙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부모의 죽을 앞에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아들에 속았고 예비범죄자의 심리분석을 등한시했다.

이런 면에서 파기원(프랑스 최고법원) 소속의 두 정신감정 전문가 클로드 세르카-니콜레스와 미셸 뒤편이 쓴 ‘패륜의 심리학’은 범죄의 정신감정이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책은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통해 그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2년간 자신들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은 피의자 2천 명과 200명의 피해자들 중 31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심리를 파헤친다. 일종의 패륜범죄자 정신감정 보고서인 셈이다. 영아살해, 근친상간, 존속살해, 연쇄강간 등 갖가지 패륜범죄자들의 성장 배경, 범죄 상황, 범죄 당시의 감정 등을 최대한 편견 없이 재검토 했다. 그리고 내린 보고서의 결론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패륜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범죄자들이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었으며, 이들은 대체 어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자를 처벌하든, 치료를 하든, 격리시키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2부에서 논하고 있는 법과 처벌에 대한 관점도 신선하다. 저자들은 “좋은 재판이란 피의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륜 범죄 당시의 무의식을 범죄자에게 일깨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 또 결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자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애써 패륜범죄자들에게 대한 정신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처럼 높은 경지의 이해심만이 있던 패륜범죄 신드롬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내 놓은 처방전이다. 책은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제기로 천안공노할 범죄자일지라도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발견했다면 그걸 치유하는 게 동일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다.

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쓴 책이라 프랑스의 법과 제도, 사회의식을 잘 모르는 한국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며 어려운 정신분석과 재판용 어휘는 이해하는 데 벅거운 점이 없지 않다. 원제는 ‘Crimes et Sentiments’ (기린원·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자들은 “모든 패륜범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패륜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 문제로 부모를 살해한 범인과 경찰의 대립을 담은 2002년 영화 ‘공공의 적 2’.

세상을 바꾸는 기발한 아이디어 소개

월드체인지... 알렉스 스테픈 지음



“미래를 바꾸는 해법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월드체인지(www.worldchaging.com)의 설립자이자 미래학자인 알렉스 스테픈이 전세계 ‘월드체인저’들의 아이디어를 한데 묶어 ‘월드체인지-세상을 바꾸는 월드체인저들의 미래 코드’로 펴냈다. 월드체인지는 전세계의 언론인, 디자이너, 미래학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혁신을 연구하는 ‘온라인 두뇌집단’. ‘월드체인저’로 불리는 회원들이 물질·주거·도시 등 각 분야에 있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이야기 했다.

버몬트의 목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풍 가스 발전, 제품에 붙은 바코드를 통해 기업체의 환경과 윤리의식을 점검하는 ‘약력기업 탐지기’, 태양, 그늘, 바람으로 냉·난방을 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소개됐다. (바디출판사·3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마법 세계에서 벌어진 뒷 이야기들

음유시인... 조앤 롤링 지음



국내에서 1천 300만부 넘게 판매된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K 롤링이 쓴 ‘음유시인 비틀 이야기’가 나왔다.

마법 세계와 마법사를 소재로 한 다섯 편의 동화가 실린 이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와 연결돼 흥미를 자아낸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편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덤블도어 교수가 헤르미온느에게 남겨준 책이라는 데서 이야기가 출발하기 때문이다.

마법학교에서 공언하다 화제가 난 사건, 마법 세계와 머물(보통 인간) 세계의 화해와 공존, 마법 지팡이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까지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실려 있다. 각 동화마다 호그와트 생활상, 마법세계의 뒷 이야기 등을 덤블도어 교수의 흥미로운 해설과 저자가 직접 그린 20컷의 일러스트도 눈에 띈다. (문학수첩 리틀북·9천 5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피에르 부르디외의 ‘재생산’

최근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다. 바로 ‘베르벤 바이러스’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강마에 최시창에게 음악을 하나 들려주며 떠오르는 느낌을 30초 동안 다섯 가지만 대보라고 한다. 그가 들려준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풍하게 들린 최시창은 제한시간 안에 겨우겨우 내 놓은 느낌이란 것이 ‘아름답네요, 예쁘고요, 좋고요’였다.

그러자 강마에가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 눈을 지긋이 감더니 음악을 느낀다. 얼마 있지 않아 강마에가 이렇게 느낌을 표현한다. “연인이 보이네요.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생각해서 웃으며 떠나보내려나 봅니다. 꼬마에도 있어요. 엄마가 없어서 저서 한참을 찾았는데 이제야 만났네요. 구두 닦는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부려서 활짝 웃고 있어요...” 음악을 끝나고 눈을 뜬 강마에가 찌푸린 얼굴로 뚱하니 앉아 있던 최시창을 가만히 보며 일갈한다. “이 많은 느낌을 어떻게 세 마디로 그렇게 건조하게 뚱뚱하게?”

이 장면을 보면서 전에 어느 대학의 사회학 교수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분 말씀이 음악 감상에도 수준이 있단다. 1단

교육과 문화 자본 축적



계는 ‘와! 좋다’는 식의 외마디 감상 수준이다. 바로 최시창처럼. 그리고 필자처럼. 2단 계는 ‘이 음악은 어떤 풍으로 어떤 요소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감상 수준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음악 속에 담긴 내적 논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레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

어갔다.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은 문화적 자원이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하여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치관, 지식, 태도, 인성, 취미와 취향, 감상 등 앞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사교육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체험이 구매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신의 문화적 소양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이유로 부모로부터 방인 방치된 아이들의 경우 문화적 소양을 쌓는 데 가정이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이는 가정 내 교육과 가족의 학교교육 지원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

가정 내 교육으로부터의 소외는 학업성취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화적 학습으로부터의 소외를 포함한다.

문화자본의 축적이 가정이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문화를 학습하는 장이 되는 사회취약계층 아이들의 경우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경제적, 문화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높은 문화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후기 근대에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문화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교육현실이 한동안 책장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던 부르디외의 책 ‘재생산’ (동문선 2000)을 다시금 책상 위 독서대로 불러들여야 한다. 박형주<교육문화공동체 ‘열’ 교육연구팀장>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보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12월 18일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해당지구 대상별 건물 3층 (061)277-8111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교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월 18일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해당지구 대상별 건물 3층 (061)277-8111

7.9급 공무원 특강. 30주부특별반, 40주-야간반+기초(英·圖) 무료특강. 1월 2일(주·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圖)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합격 확신함. www.mdgosl.co.kr 222-4560